

해외업무 사례

미얀마 진출회사 OGM과 법률자문계약 체결

법무법인 지평지성은 2006년부터 미얀마에서 광산업, 요식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는 OGM과 2012년 2월 정식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 향후 미얀마 현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OGM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.

[담당 변호사]



양영태 대표변호사

정철 변호사